

26 Food culture of Various Countries - Hamburger

먹는다는 것의 의미 음식 문화의 발달 정도와 집단의 성향 - 햄버거 유감

H 퀄리티가 좋지 않은 고기를 어떻게든 먹기 위해 갈아서 빵 사이에 끼우고 여러 가지를 넣어서 먹었다는 음식의 유래를 굳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나는 **햄버거**라는 먹거리가 싫다.

26

고기를 먹을 것이면 구할 수 있는 고기를 형편에 따라 굽거나 삶아 조리해 먹으면 된다.

빵을 먹으려면 역시 원하는 적절한 빵을 골라서 먹거나 기호에 따라 치즈버터 혹은 잼을 같이 먹으면 된다. 야채 역시 종류에 따라 그 자체로 혹은 올리브 오일 등을 첨가해서 또는 데쳐서 먹을 수 있다. 그런데 이 모든 걸 한꺼번에 모아서 ? 어찌자는 건지 난 모르겠다.

내용물을 차치하고라도 나는 햄버거를 먹는 과정이 더 싫다. 빵 조각 야채 페티 소스를 흘리지 않고 먹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. 입 주변과 손가락에 소스 혹은 무언가를 덕지덕지 묻히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. 묻히고 흘리고 때로 옷에까지 그리고 나중에는 팔이 손을 씻어야만 하는 이 **과정**이 더 싫다.



M 나는 나의 한 끼를 이런 식으로 해결하고 싶지 않다. 결코 칠첩반상을 원하는 게 아니다. 그저 찬이 하나만 있더라도 아니 찬이 부실하거나 심지어 없더라도 빵이든 밥이든 면이든 그저 그 하나 자체로 조금 온전하기를 원한다.

음식이 변변치 않다고 알려진 나라들이 있다. 영국과 독일 & 미국과 일본이다. 영국의 피쉬 앤 칩스와 독일의 학센과 소시지 미국의 햄버거 그리고 일본의 덮밥과 스시가 그나마 알려진 대표 음식이다. 이들의 특징은 만드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고 당연히 조리법이 아주 단순하다. 즉 **간편식**이다.

간편식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재료가 고급져도 간편식은 한계가 있다. 컵밥에 토핑으로 랍스타가 들어가도 컵밥은 결국 컵밥일 뿐이다. 간편식이 극도로 발달한 것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씨레이션 - 전투 식량이다. 내가 생각하는 가장 **슬픈 음식**이다.



F 한 나라의 음식 문화는 어쩔 수 없이 왕실이나 상류층의 문화가 그 나라의 전체 식문화를 이끌어 간다. 미국은 왕실이 발달하지 않았으니 제쳐두고 영국과 독일 & 일본은 왕실 문화가 있었으나 서민들에게 까지 보편화 되지 않았다. 그 나라의 음식의 재료가 일반인들이 다양하게 챙겨 요리를 해 먹기에 질보다 양이 부족했다. 퀄리티가 아니라 양이 문제였으니 문화가 발달하는 것이 불가능했다.

흥미로운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식생활이 여유롭지 않았음에도 위에 예를 든 영국과 독일 일본 그리고 미국은 시민들이 왕실과 지배층을 타도한 경험이 없다.

특정 문화가 발달하려면 우선 다양성이 담보되어야 한다. 프랑스와 이탈리아에 비해 영국 독일은 민족적인 **다양성**이 떨어지고 외국인에 대해 배타성이 강하다. 이에 반해 이민족으로만 구성된 미국은 다양성이 차고 넘치면서도 오히려 유색 인종에 대한 차별이 극심한 모순을 가지고 있다. 결과적으로 이런 배타성의 결과로 다양한 문화가 발달하지 못했다.

R 묘하게도 위에 언급된 음식 문화가 발달하지 않은 나라들은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세상을 지옥으로 만든 역사를 가지고 있다. 우연일까 ? 음식 문화의 천박함과 **공격성**이 우연인지 필연인지 알 수는 없다.



그러나 폐쇄적인 성향과 전투 식량 같은 간편식의 발달은 민족의 성향에 영향을 줄 것이다

햄버거에서 시작해서 민족성까지 멀리 왔다. 몇 년 전 누군가 ‘ 없는 사람들은 죽지만 않으면 **불량식품**도 싸게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한다 ’ 고 말하는 것을 보고 내 눈과 귀를 의심했다. 작금의 가까이 다가 온 불안의 기운과 겹쳐져서 더욱 더 괴기스럽다.

인간은 먹은 것으로 만들어진다. **바른 것을 먹고 맑은 정신으로 옳은 것을 말해야 인간이다.**

